Global Leadership Program

씽씽(惺惺[xīngxīng]) 조
국제통상학과 60151109 김인영
국제통상학과 60151127 석혜윤
국제통상학과 60151152 이지윤

목 차

1. 탐방 기간에 보고 배운 점

2. 자유탐방 활동 내용

3. 후기

탐방 기간에 보고 배운 점

-Kotra

Kotra에서는 심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웠다.

중국 심천은 중국 최초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1980년 부성급 도시가 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1차,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이 58.8%에 육박했다. 심천에서 한국 기업은 425개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심천 경제는 홍콩 자본과 외자 유입, 낮은 인건비와 제조공장으로 가공제조업에서 가공제조업과 첨단기술 산업 육성으로 진화하고 2008년 이후에는 서비스 산업과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발전했다. 중간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소비재도 증가 추세이다.

심천은 세계 4위의 중국 물류 허브로써 물동량이 2,362 TEU에 달한다. IT 전자 산업에서도 스마트 하드웨어 생각을 중국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2014년 탄소배출감소협약이 발효되고 친환경 사업으로 2018년 중국 친환경 도시 1위로 선정되었으며, 심천시 안의 택시와 버스 모두 전기차로 이루어져 있다.

심천은 중국 최고의 프리미엄 소비시장이다. 심천은 중국 내 개인소득 1위로 2018년 1인당 GDP가 189,568위안이다. 파워 컨슈머층을 보유하였으며 고가품, 웰빙, 유행에 민감하다. 글로벌 유통기업 본부(월마트, 이케아, 화룬완자 등)와 민영기업(텐센트, 화웨이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코트라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과 비교해서 중국에서의 삶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예상 외로 전자결제시스템과 배달문화 등이 한국보다 발달되어 있어 불편한 점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두 번째 질문으로,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심천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물어보았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지식재산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게다가, 중국 정부 측에서 양립적인 입장으로 지식재산권 이슈를 해결해 준다는 말을 듣고 시스템이 체계화 되어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다.

-Microsoft Ignite Tour

Dynamic 365 섹션을 통해, 경영 시스템 체인을 어떻게 구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을 수 있었다. Dynamic 365를 통해 기업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일 처리방법을 간소화하고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사업의 구동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코딩을 주로 설명하고 중국어로만 진행되어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텐센트 창업기지

텐센트는 로봇, 블루투스 스피커, 통역기(104개 언어로 동시통역 가능)가 유명하다.

-3nod

3nod는 고객의 고개를 3번 끄덕이게 만든다는 뜻의 기업이다. 금융, OEM 방식에서 자체생산으로 변경되었다.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많으며, 시장 점유율이 치열하여 텐센트, 알리바바와 합작을 많이 하고 있다. 하드웨어만 보면 재정이 마이너스지만 플랫폼을 이용해 여러 제품을 같이 구매하게 만들어 이득을 내고 있다.

-DJI 드론 전시관

CEEC 건물에 입주중이며, DJI는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70%의 점유율을 보이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다른 경쟁 회사가 생기면 먹어 치우기 때문에 독점이여서 비싼 편이다.

-허마센셩

배달업계가 한국보다 잘 되어 있다. 무인가게로 소비자가 집에서 주문을 하면 마트에서 해당 물품을 찾아 배송해 주는 시스템이다.

-연화산

중국의 유명한 관광 코스라고 불리는 연화산 등산을 통해 중국 심천만의 나무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열대 기후로 이루어져 있는 심천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초여름과 같은 날씨를 보여주었다. 중국 개방의 설계자인 등소평의 동상이 있다.

중국현지식

다양한 로컬푸드를 통해 중국 사람들이 즐겨먹는 식사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고서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따듯한 차 덕분이라고 배우게 되었다.

<u>자유탐방 활동 내용 (김인영)</u>

-이동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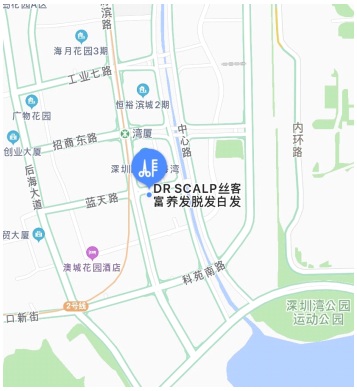
이동수단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였다. 비용은 공동경비를 거둬서 지불하였다. 길찾기는 고덕지도 어플을 받아두어 경로를 안내하였다. 지하철은 호텔에서 심천대학교까지 가는데 이용하였으며 인당 왕복 12위안으로 환승 없이 50분 정도 걸렸다. 버스는 인당 2위안으로 심천대학교에서 닥터 스칼프를 가는데 지불하였다.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영어로 안내가 나와 역을 찾기 수월하였다.

-심천대학교

자유탐방 첫 목적지로 심천 대학교를 방문하였다. 개혁개방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받아 현재는 문학원, 경제학원, 관리학원, 법학원 등 13개 학원과 유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과 전공 44개, 석사전공 38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종합 대학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벨리라고 설명하는 심천에서 유일한 국립대학이며 텐센트의 창립자 마화텅의 출신학교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우리 팀은 심천대학교 재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서로 번역기를 틀어서 소통해

야 했지만 끝까지 친절히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동영상은 부담스럽다고 하였지만 인터뷰 중 사진을 찍는 것은 허락받을 수 있었다.

-닥터 스칼프(심천 양광점)



웨이두오 리야 스파를 처음 계획을 하였지만 한국기업으로 탈모와 두피트러블을 과학적인 케어기술과 제품으로 관리 개선하는 탈모/ 두피 글로벌 브랜드인 닥터 스칼프로 장소를 변경하였다. 현재 중국을 포함하여 10여 개국으로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이다. 주변에 주택가가 많고 지하철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양광점에 방문하였다. 같은 라인에 헤어숍이 3개 정도 있었지만 두피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니었고 모발 관리만 하는데 200위안 이상이었다. 닥터 스칼프에 도착했던 시간이 1시 30분이였는데 4기 이전까지 모두 예약이 되어있었다. 안타깝게도 5시까지 집결해야 했기 때문에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닥터 스칼프에서는 두피케어, 탈모관리, 모발관리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염색으로 인한 두피 관리와 같이 두피의 유지 보수만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이후 탈모 관리, 스트레스로 인한 흰머리 관리, 폐경기 이후 탈모 방지 관리, 산후 탈모 관리 등 건강과 연관 지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지점을 방문했을 당시 아쉬웠던 부분은 내부에 관리 받을 수 있는 의자가 3개였는데 모두 붙어있어 관리를 받을 때 옆에 사람과 가까이 붙어있다는 점이였다. 또한 관리 받는 곳이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서 접수처에 가면 뒤쪽으로 관리 받는 모습을 모두 보이는 것이 아쉬웠다. 내부에 손님이 있어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불가능했다.

-화창베이

탐방일정에 포함되어 자유탐방 때 재방문하지는 않았다. 탐방 시간 때 방문했던 화창베이는 전자상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용산 전자랜드 같은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재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현재 중국의 기술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전자제품의 부품부터 전자기기, 핸드폰 케이스, 드론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단점이라면 지나치게 넓고, 부품 판매점이 종류에 맞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물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녀야 했다. 이곳에서는 모조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샤오미의 로고와 외장을 그대로 흉내 내거나 애플의 에어팟을 포장부터 내부까지 그대로 카피한 것도 볼 수 있었다. 화창베이에는 중국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kkmall

자율탐방계획에는 하이야 메가몰을 가려 하였다. 현지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을 다양하게 보며 시장조사를 하기 위함이었다. 탐방일정당시 현지 음식으로 저녁을 먹기 위해 방문한 곳인데 이동 중에 가이드 분이 이곳을 추천해주셨다. kkmall은 종합쇼핑몰로 지하 1층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으며 마트가 있고 4층까지는 쇼핑몰이다. 5층에는 공원이 있고 그 위층부터는 거주지라고 말씀해주셨다. 4층으로 가면 다양하게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재방문했을 땐 아쉽게도 리모델링 중이라 이용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현지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트렌디한 곳이라 판단하여 건물을 돌아보았는데 reese라는 가발 집을 보았는데 가발을 맞추고 있는 고객이 있었다. 거리에서 종종 가발집을 보았는데 미용목적으로 가발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발에 있어서 거부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u>자유탐방 활동 내용 (석혜윤)</u>

- 심천대학교

중국 심천에 위치한 심천 대학교에 방문하였다. 심천은 중국 중에서도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도시여서 탈모에 대한 젊은층인 대학생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중국 춘절의 시기가 다가오는 때였으며 오전 시간대라 대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인터뷰하기가 조금 힘겨웠다. 대학교 한 건물에서 심천대학교 대학생과 인터뷰 할 수 있었다. 그는 탈모에 관해서는 아직 잘 모른다고 답했다. 탈모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인들 특성상 대놓고 말하지는 않고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인들은 타인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oT 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탈모 인구는 매 년 늘어나고 있어 탈모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 닥터 스칼프

처음에는 웨이두오 리야 스파를 계획했었는데 현지에서 한국에도 있는 두피케어 관리샵으로 변경하였다. 닥터 스칼프는 한국에서 처음 생긴 두피 케어 전문 프랜차이즈이다. 심천에만 31개 지점이 있으며 우린 그 중 심천 대학교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닥터 스칼프에 갔다. 닥터 스칼프가 위치한 지역은 사립 초등학교와 영어학원, 거리를 따라서 밀집해 있는 높은 가격의 스파와 마사지샵, 미용실을 보니 중상층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았다. 예약을 하고 가지 않아서 바로 관리를 받을 수 없었다. 늦은 시간에 가능했지만 집결 시간에 호텔에 도착하지 못할 듯해 관리 받을 수 없었다. 관리를 못 받는 대신 직원과 얘기를 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지만 예약을 하지 않으면 관리를 못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으며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간다고 한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었는데, 두피 관리도 중요하지만 차별화된 서비스, 장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번역기로 얘기만 하고 있는 우리에게 차를 내어 주고 환한 미소로 답해주었다.

중국에서 아직까지 두피 전문 케어샵이 많지 않은데, 닥터 스칼프처럼 빨리 산업에 뛰어들면 탈모 산업을 이끄는 선두 기업이 될 것이다.

- 화창베이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성지인 화창베이. 다양한 제품이 거래되는 중국 IT산업의 중심지인 세계최대 전자상가이다. 수천가지 제품이 전시되어 있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흥정하며 협상과 타협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요한 전자기기가 없어 구매하지는 못했다.

자유일정에 넣었으나 스케쥴이 수정되어 단체 일정에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다시 방문하진 않았다.

- KKmall

패션, 음식 등 다양한 점포가 입점해 있는 쇼핑몰이다. 현지에서 맛집을 추천받아 갔으나 리뉴얼중이여서 디저트를 맛보았다.

중국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따듯한 차를 주로 마신다. 영국보다도 차를 많이 마시는 나라로서 다양한 차와 다양한 디저트로 발전한 차들이 있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KKmall에서도 가발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통가발부터 여러 개를 구입할 수 있는 작은 피스들까지 작은 매장에 다양한 종류의 가발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 손님이 가발을 구매한 뒤 미용실처럼 가발을 손질해주는 점원에게 머리를 맡기고 있었다. 다양한 가발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여 패션도 놓치지 않고 있다.

자유탐방 활동 내용 (이지윤)

팀원들과 미리 계획한 대로 자유탐방을 최대한 수행 할 수 있었기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활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심천 대학교 방문에 있어서는 방학 시기와 학생들의 소극적인 마음이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지 않을 것이라 우려했지만, 한 학우분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의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보람찼던 방문기로 남는다. 그러나 가장 학수고대하던 헤어샵인 닥터 스칼프에선 예약이 힘들다고 거절당한 점이 가장 안타깝다. 하지만 친절히 설명도 해주시고 중국인들의 탈모에 대한 걱정과, 두피 케어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빈번히 받는지 충분한 학습이 된 시간이었다. 또한, 일정을 최대한 수행해 내려 하다 보니, 점심시간을 놓쳐 중국 전통식을 따로 즐기는 것이 어려웠다.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쉽지만, 자유탐방을 제외한 탐방기간 내내 중국식을 즐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쇼핑몰도 방문하여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 원래 자유탐방 계획으로 되어있던 화창베이가 전체 탐방일정으로 변경되게 되어서 훨씬 시간과 체력 그리고 소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자유탐방 이었다. 비록 탐방계획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고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존재하지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배우고 알아가고, 학습이 되었던 보람찬 자유탐방 활동이었다. 그렇다면 방문했던 장소와, 탐방계획서를 마무리 해 보며 자세한 활동내용을 기술하겠다.

1. 심천대학교 (위치 : 广东省深圳市南山区南海大道3688号 邮政编码: 518060)

10시 30분경 호텔에서 출발하여 심천대학교로 향하였다. 이동한 교통수단은 지하철 이었으며, 호텔 주변 역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경로였다. 중국의 지하철은 토큰형식의 동그란 일회용 티머니를 제공해 주었다. 가격은 인당 6 위안이었으며 총 경비는 18 위안이 소요되었다. 호텔 근처의 역 '루오후' 역에서 심천대학교가 위치하는 역까지 소요되는 총 시간은 약 50분 이었으며, 지하철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다. 다만, 중국인들의 문화 특성상 이야기를 크게 하고, 전화통화도 크게 말하는 문화가 있어, 다소 시끄럽다고 느꼈다. 또한 이에 대응하듯이, 지하철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 또한 매우 크다고 느껴졌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철에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는 반면, 중국의 경우, 중국어와 영어로 안내방송을 해 주었다는 차이점을 느끼게 되었다. 더욱이, 중국의 지하철은 종점 역에 오게 되면, 반대편 문에서 모든 사람이 내린 후에 반대편 문이 다시 열려, 탑승객들이 탑승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져 있어서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되었다.

심천대학교에 도착하여, 심천대학교를 찾아 거닐었다. 생각보다 학교는 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날씨가 화창하여 걷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 심천대학교 정문은 매우 커다란 문이 있었고, 문을 지키고 계시는 경비 아저씨가 계셔서 들어가기가 꺼려졌지만, 학생들이 진입할 때를 노려 대학교를 방문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더 많은 곳을 둘러보고, 도서관도 구경해 보고 싶었지만, 넓은 캠퍼스에 길을 잃을 뻔하여 짧게나마 정문과 가까운 건물들을 견학해 보고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다.

심천대학교를 재학 중인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영어를 잘 못한다고 대답한 학생이지만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한 모습에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했던 인터뷰를 가졌다.

질문	답변
이름은 무엇인가요?	챠징 입니다
전공은 무엇인가요?	엔지니어 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 가장 흥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리학 입니다
중국의 기술과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중국인들의 헤어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지 못해, 조금은 아쉽지만 중국인들이 헤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의견을 주어, 좋은 답변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학생들은 자국에 대한 자긍심은 높지만, 타인의 생각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물론, 소수의 학생을 인터뷰 한 것만으로 전체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아쉽지만, 이렇게 소수의 학생이라도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보람찼던 자유탐방의 시작이었다.

2. 탄카오 트립스 (위치 : 广东省深圳市南山区南山大道1122号-1)

심천대학교 방문을 마친 후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려 했으나, 계획된 헤어 스파 장소가 있어 방문 후에 가기로 예정이 미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예상 외로 헤어 스파 장소에서의 소통이 길어지게 되어,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매우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나머지 탐방 기간 동안 중국 음식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에, 크게 여의치 않았던 활동이었다. 하지만 다음 번 이러한 탐방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간 관리와 탐방계획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꼭 체험을 함께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하이야 메가몰 (广东省深圳市南山区南油南海大道2746号 邮政编码: 518054)

탐방 기간 중, 가이드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KK mall 이라는 쇼핑몰이 있었다. 우리는 기존에 방문 예정이었던 하이야 메가몰 대신, KK mall 이라는 쇼핑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가이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보가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보다 정확했고, 위치설명도 잘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KK mall까지의 이동수단은 지하철을 이용했고, 환승 없이 한 번에 도착 할 수 있었다.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이어져 있는 쇼핑몰은 생각보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배치되어 있는 옷들과, 정렬을 보고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쇼핑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식 화장실은 한국의 예전의 모습을 보는듯하여 신기하였다.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소한 것 까지는 발달이 덜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쇼핑몰임에도 불구하고, 찻집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나라는 커피샵 일 텐데, 중국은 Tea를 먹는 문화에, 차를 파는 곳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4. 웨이두오 리야 스파 (广东省深圳市南山区后海后海大道)

웨이두오 리야 스파를 가려했던 계획과는 달리,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심천에 유명한 두피 케어 관리기관을 발견해 '닥터 스칼프'로 장소를 옮겼다.

닥터 스칼프는 심천대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 약 40분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었으며, 심천의 가장 끝 쪽 이어서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다. 닥터 스칼프가 위치해 있는 곳의 동네의 분위기는, 평소 보던 중국의 동네와 확연히 차이가 느껴졌다. 고급진 고층 건물들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과 알록달록한 초등학교 건물들을 보고 부자들이 살 것만 같은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다. 특히 그 동네 골목골목에는, 마사지 샵과 헤어 케어 샵이 유난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거의 10군데 이상의 가게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헤어와 바디 관리에 대한 가게가 줄지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가게들의 가격은 학생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고가의 서비스들 이었고, 부자동네임이 점점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닥터 스칼프에 방문하여, 가게 상황을 보니 매우 많은 손님들이 케어를 받고 있었으며, 모든 직원 분들은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다. 작은 차와 다과를 내어주시며 좋은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었으며, 지금은 헤어 케어를 받을 수 없고 오후 늦게나마 시간이 되신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 시간은 자유탐방에서 돌아가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로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직원 분에게 여쭈어본 결과, 평소 예약이 항상 차 있어서, 이렇게 당일 예약이 비는 날은 흔치 않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로 인해, 중국인들이 얼마나 헤어에 관리를 하고 두피를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다. 비록, 서비스를 직접 받아보진 못하였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현장을 방문함을 통해 현지인들의 헤어 열풍에 대해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5. 화창베이 (广东省深圳市福田区华强北华强北路2014号 邮政编码: 518000)

원래는 자유탐방 시간을 활용하여, 방문 할 예정이었으나, 학교에서 주최하는 탐방 일정에 추가가 되어서 따로 자유탐방을 하진 않았다. 그러나 자유탐방 일정에 있었기에 배우고 느낀 점을 이곳에 써보려 한다.

우리나라 동대문처럼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출발하였다. 하지만, 중국 대륙의 스케일로, 동대문보다 매우 큰 규모를 자랑하였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즐비해 있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상품들 사이에서 어떠한 물건을 쇼핑하고 흥정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게 되었다. 구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보게 되었다.

화창베이 방문을 통해, 얼마나 중국의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는지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화창베이에 방문한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기술을 탐내는지도 알게 되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전자기기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던 그곳은 뚜렷한 쇼핑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성공 할 수 있는 쇼핑거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흥정도 가능하니, 재미난 경험을 가질 것 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어로 흥정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지만, 커다란 상품들 사이에서 느낀 감동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후기 (김인영)

심천은 처음 방문한 중국이었는데 기존에 생각했던 중국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살면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보다 앞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첫째 날 일정이었던 코트라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한국과 비교해서 중국에서의 삶이 불편한 것이 있는지 물었을 때 딱히 없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소량배달서비스도 중국에서는 먼저 사용하고 있었고 주문 후 도착시간도 우리나라보다도 빨랐다. 결제시스템은 QR코드를 찍어서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결제방식을 사용하여 카드 단말기나 현금 없이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었다. hey tea go라는 찻집에서는 위챗페이로밖에 결제가 되지 않아서 현지인의 위챗으로 결제 후 현금으로 주어 구매할 수 있었다. 동문시장에서도 위챗페이로 찍어야 메뉴가 보이는 음식집들도 있어 위챗만 있다면 살기 편리한 곳이겠다고 생각하였다.

탐방 중 가장 기대하였던 마이크로소프트 투어에서는 탐방계획 당시에 유튜브로 보았던 투어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실망하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이용해볼 수 있도록 전시해놓은 전시장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제품을 이용하고 있어도 설명을 하기 보다는 목에 걸려있는 이름을 태그하고 가는 것이 끝이었다. 우리 팀이 참가하려고 하였던 세션은 모두 중국어로 진행되어서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해서 아쉬웠다. 세션은 코딩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중국기업탐방은 중국의 IT 성장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텐센트에서는 잠시 동안 로봇들을 볼 수 있었다. 3nod에서는 교육용 터치스크린으로 학생들의 기기와 연결하여 강의하고 숙제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아이들 용으로는 책에 있는 그림을 사진을 찍으면 3d로 만들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스피커와 생활에 밀접한 ai 가전제품들도 접해 볼 수 있었다. dji에서는 다양한 드론을 보고 조종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높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전방 사물의 유무, 바람의 세기를 자동을 인식한다. 배달을 드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었는데 드론으로는 중간상에게 배달하는 것

까지 진행되고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할 경우 드론의 날개가 위협이 되어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라 하였다. 드론에 있어서 dji가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나니 화창베이에서 본 드론은 장난감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탐방 때 가이드 분의 설명이 너무 재미있었고 자율탐방관련 질문을 할 때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지 식사도 맛있었다. 자율탐방 때 단체탐방보다 더 현지인과 접촉하고 현지 문화를 접해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팀원 모두 출발하기 전 탐방계획을 꼼꼼하게 계획하였고 탐방전날에도 탐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출발하여 알차게 탐방을 할 수 있었다. 다만 탐방 전날 심천대학교도 방학인 것을 알게 되어 심천대학교를 제외하려했지만 그곳에서 한명이라도 인터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방문하게 되었다. 학생과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보람되었다. 닥터 스칼프에 방문했을 때는 중국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있고 매출도 좋다는 것을 보아서 중국진출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리 예약할 수 없었던 것과 이곳에서의 인터뷰가 길어져 점심 현지식을 먹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다. 자율탐방의 기간이 하루정도 더 주어진다면 알차게 탐방할 수 있을 것 같다.

후기 (석혜윤)

현재 중국은 현금이 사용이 현저하게 사라지고 QR코드로 거리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모든 거래를 진행하는 등 스마트화가 되어 있었다. 한국도 삼성페이를 사용하여 현금 사용이 줄었다고 생각했으나 중국에 가서 직접 겪어보니 한국보다 한 수 위였다.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에겐 길거리의 음식도 잘 못 사먹을 만큼 다소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생겼다. 중국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알리페이, 위쳇페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판매하도록 해야겠다.

심천이 스타트업의 도시라고 들어서 한국인이 심천에 가서도 많은 지원을 받으며 창업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중국인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외국인은 창업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비해 제한적이라 심천에는 한국기업이 425개 있으며 많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꽌시 문화가 발달해 있어, 성장을 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과 꽌시를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창업으로 시작을 한다면 막막할 것 같다.

한국하면 배달 최강국이라 생각했는데, 배달업계가 한국보다 잘되어 있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 순풍이라는 기업의 가족경영으로 한 가족이 배달 업종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이라는 큰 대륙에서도 연결이 잘 되는 듯하다. 허마센셩에서도 마트 천장에 집에서 주문한 생필품들이 장바구니에 담겨 머리위로 지나다녀 신속하게 소비자의 품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점 은 한국으로 벤치마킹하여 들여와도 괜찮을 것 같았다. 독점이라는 것이 지속되다보면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지만 초반에 성장할 때는 폭발적인 성장력을 낸다. 독점이라 하면 DJI 회사를 빼놓을 수 없다. DJI는 드론으로 유명한 회사이다. 경쟁사가 생기면 인수하여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경쟁사를 계속 흡수하며 커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며,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외국에서도 직구, 중국에 입점하면 소비자들도 현명한 소비를 하여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본다.

심천이 계획된 도시여서 그런지 교통도 잘 되어 있었으며, 거리와 지하철, 버스,

택시도 깨끗했다. 택시와 버스 모두 전기차로 되어 있어 환경에도 노력한 것이 보였다. 거리에는 노인들보단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심천은 평균 연령이 매우 낮은 도시라는 것을 실감했다. 중국 최초의 개방 지역으로서 집값도 비싸고 부자가 많은 동네였다. 물가가 한국보단 저렴하긴 하지만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Microsoft Ignite tour에 많은 기대를 하고 갔으나 영어 설명도 부족했고 생각보다 볼 것이 없었다. 차라리 이것보단 자유 시간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알아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곳들이 많은데 아침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빠듯했다.

후기 (이지윤)

전반적으로 중국의 문화와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보람찬 탐방이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했던 중국 현지식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중 하나였다. 또한 자유탐방을 통해 직접 궁금했던 사실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부딪혀 보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게다가 중국의 대중교통인 택시, 지하철, 버스 모두를 이용해 봄으로써 다양한 기회와 많은 풍경들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첫 날 일정은 매우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하루였다. 심천의 날씨는 포근했고, 저녁에는 살짝 쌀쌀한 정도이지만 한국의 겨울을 겪고 난 뒤라면 매우 만족스러운 날씨였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바라본 심천공항은 매우 큰 천장으로 나를 압도시켰다. 커다랗고 벅찬 마음을 들게 했던 심천공항은 인천공항 못지않게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공항에서 야외로 나서는 순간, 수많은 담배연기와 낮은 공기압이 숨을 막히게 한 점은 매우 아쉬웠다. 뜨거운 햇살에 낮게 내려오는 공기가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게 한 느낌이 든다. 그렇게 가이드 선생님과 첫 만남을 이룬 뒤, 중국의 여러 모습을 보니 건물들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건물들이 많아, 감명 깊었다.

처음으로 방문한 코트라 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하던 사실을 해소할 수 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한국과 비교해서 중국에서의 삶이 불편한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라는 나의 질문에 대답은 예상외로,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으시다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중국도 경제 대국임을 보여주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만큼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는 어느 정도 일어나는 편인가'의 질문에도 또한 예상외의 답변을 받게 되었다.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는 언제나 문제가 되어 항상 일어나긴 하지만, 언제나 중국정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현재는 커다란 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해 주셨다. 이로 인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사실과는 다르게 중국이 많은 신경을 자국민에게 쓰고 있으며, 경제 대국임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 일정은 많은 곳을 돌아다녀서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방전 되었다. 그러나 아침 식사를 호텔 조식과 함께 시작해 든든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학수고대하

던 마이크로소프트 탐방은 예상보다 그리 잘 진행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참여하려고 했던 세션이 모두 중국어로 진행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 참여하기가 어려웠었다. 중국어 이지만 영어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세션을 진행하는 곳을 찾아, 다이나믹 365 세션에 참가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전자기기를 체험해 봄으로써,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앞으로의 경영활동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탐방 이었다. 다만, 수많은 섹션들이 중국어로만 진행되는 점은 조금 아쉬웠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의 마이크로 소프트 투어에 참여해 더 많은 것을 얻어가고 싶다.

셋째 날 일정에서 중국의 유명 기업 탐방을 통해, 그 기업들의 성장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다양한 기술들을 보고 놀라기 일쑤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기술은 3nod의 교실 칠판기술 이었다. 다양한 교과서들을 사진과 그림에 있는 설명을 직접 움직임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고, 학생들과 더 많은 소통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기술력이 놀라웠다.